

Dr. Robert Vannoy, Kings, 강의 13

© 2012, Dr. Robert Vannoy, Dr. Perry Phillips, Ted Hildebrandt

엘리아와 구속사 설교

복습: 모범적이고 구속적인 역사적 설교

지난 주에 우리는 다소 이론적인 방식으로 구약의 역사적 내러티브에 대한 설교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논의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구약이나 신약과 같은 역사적 내러티브에 대한 설교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학에서 성경의 역사적 내러티브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당신이 기억하듯이, 우리는 주로 알레고리적 접근을 기각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모범적이거나 예시적인 접근 방식과 구속적 역사적 접근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구약 성도들의 삶에서 예시와 예를 찾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전부라면,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성경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구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경의 역사적 이야기를 정당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와 구속을 이루기 위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려면 이러한 내러티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할 때 그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속사적 접근을 통한 엘리야 자 ,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구속사적 중요성을 강조할 엘리야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 중 일부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가져오려고 했다. 당신이 그 참고 문헌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참고 문헌에 있습니다. 나는 과정의 시작 부분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참고 문헌의 3페이지를 보면 "구약 서사 텍스트의 설교적 사용"이라는 제목의 섹션이 있습니다. Sydney Greidanus의 두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한 첫 번째 것은 히브리어 내러티브 설교에 관한 장에 있는 그의 저서 *현대 설교자와 고대 텍스트의 9장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읽으면 당신이 이런 의미의 무언가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과 그 장에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 대한 생각과 역사적 내러티브에 대한 설교에 대해 생각하면 거기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 의 두 번째 항목 . 본질적으로 약 20년 전에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에서 작성된 그의 논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내가 지난 주에 네덜란드에서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설교, 즉 모범적 대 구속적 역사적

설교에 대해 언급한 논쟁에 대해 논의하고, 다시 돌아가 이러한 방법을 오가는 논쟁에 관한 많은 기사를 통해 다소 격렬한 논쟁을 분석합니다. .

그리고 그 책은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다음 두 개는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구속적 역사적 접근 방식을 옹호하는 Carl Trueman과 C. Trimp의 기사입니다.

마지막 항목 은 MB Van't Veer가 쓴 *My God is Yahweh* 라는 책입니다 . 그는 몇 년 전 네덜란드에서 그 논쟁의 구속적 역사적 측면을 대표하는 네덜란드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배교 시대의 엘리야와 아합"이라는 부제를 볼 수 있듯이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에 대한 토론입니다. 상당히 유용한 볼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속사적 관점이 이 본문들에서 어떻게 발견되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끌어내면서 매우 정교하게 작업합니다 . 우리 도서관에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 번역되어 Isaiah Press라는 캐나다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아마도 Great Christian Books의 상점을 통해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 볼륨을 보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이것을 얻은 곳입니다. 오늘 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접근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Van't Veer가 이러한 Elijah 내러티브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D. 옴리 왕조 1. 옴리 2. 아합

… ㄹ.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1. 엘리야의 초림 - 열왕기상 1-6장 개요로 돌아가면 지난주에 중단했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 있는 “d”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나는 “1” “욘리”와 거기에 있는 하위 항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는 “Ahab”이며, 나는 그곳에서 그의 인격, 그의 삶, 바알 숭배의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d”, “엘리야와 엘리사의 일”로 이끈다. 그리고 “1”에는 “엘리야의 첫 출현, 열왕기상 17:1-6”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집어 들고, 당신이 설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자료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고 구속적 역사적 관점에서 이 자료를 살펴봅시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 디셉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슬이 내 말 외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Van’ t Veer는 그 본문에 대한 논의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언약을 버릴 때에도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다” 라는 주제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Van’ t Veer의 관점에서 이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고 한 것을 보면 그의 백성이 언약을 버릴지라도

Van't Veer가 지적한 것은 Ahab의 시대이고 Jezebel은 또한 Elijah의 시대입니다. 16절 끝에서 아합과 그의 통치가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했고, 17:1에 이르면 갑자기 엘리야가 거의 뜬금없이 나타나서 거기에 있고 그가 아합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의 때는 엘리야의 때이기도 합니다. Van't Veer는 Ahab와 Elijah라는 두 인물에서 당신이 정반대를 구현했다고 제안합니다. 당신은 대조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표현에 존재하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대조임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가장 근본적인 형태, 즉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대립으로 보십시오. 진리와 오류, 믿음과 불신 사이의 대립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왔을 때 그것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대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에서 당신은 정반대를 가지고 있고, 그 선은 날카롭게 그어져 있습니다. 대결과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아합의 의미 그래서 아합이 묘사된 앞 장에서는 어두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사진에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사진에 새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왕국 시대에서 이 특정한 시간에 대한 설명에

주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공간은 이 특정 시간에 할당된 자료의 양입니다. 아합의 시대와 아합의 집은 구약 시대, 즉 이스라엘 왕국 시대 전체로 볼 때 비교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조가 구속사에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윗 때부터 포로기까지의 시간은 십분의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때의 묘사는 열왕기상하의 삼분의 일 정도를 차지한다. 이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뜻깊은 시간입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역사에서 아합의 의미는 그가 이스라엘을 갈림길에 놓고 의식적으로 그들을 참된 재앙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북왕국을 다스렸지만 그의 영향력은 북왕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을 보면 남왕국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영향력은 남쪽으로 미쳤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아합의 집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는 아내로 아합의 딸을 두었고, 물론 그것은 적어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리아였습니다.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당신은 아달리아가 유다에서 다윗의 왕가를 말살하려고 시도했고 여호와께서 그 가계를 보존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성공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의미심장한 때이지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언약을 저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벌이신 논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발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언약을 버릴 때에도 그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먼저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 아합에게서 요약되었음을 봅니다.

아합의 혼합주의 죄 아합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의 죄가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합주의는 기본적으로 대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진리와 오류 사이의 대립에 대해 말했습니다. 혼합주의는 대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신권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언약의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의 수도 사마리아의 북왕국 사마리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 바로 옆에 공식적으로 예배할 장소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제1계명을 어기면 다른 모든 계명이 제1계명에 달려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로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전체 법을 무효화합니다. 그는

이교도 숭배를 북왕국에 도입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전과는 달랐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통치 말기에 여호와에게서 돌아섰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다른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통치 전체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차 그것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Ahab의 의식적인 정책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아합이 끝까지 가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근본적으로 없애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고백을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니이다”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의 신이다”로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대립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둘 다 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옆에 바알을 원했습니다. 즉, 그는 혼합주의를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합의 태도가 이세벨의 태도보다 더 위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아합은 둘 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더 기만적이고 위험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의 죄는 아합의 죄였습니다. 혼합주의는 상충되는 신념의 결합입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주위에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의 구약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은 언약의 백성과 다른 백성 사이에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와 그들의 신들에게서 빼앗아 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새 땅으로 인도하여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떨어져서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그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주위에 그어놓으신 선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현대의 혼합주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두신 정반대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신정 정치에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이 구약 시대처럼 오늘날 민족적, 민족적, 정치적 노선을 따라 그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의 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엘리야와 아합 시대와는 다른 형태를 띌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현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헤겔 이후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헤겔은 독일 철학자로, 간단히 말해서 논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대립이 발전하고 그것은 또 다른 대립을 생성하는 종합에 의해 해결되며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 생각이 철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상대주의였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사라지고 그런 생각이 서구 세계의 사고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혼합주의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 주위에 그은 선을 지우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이 전체적인 구분은 오늘날에도 확실히 계속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반대를 유지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과 우리의 가치를 형성하는 방식 등에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주위에 설정하신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그어진 선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언약을 버릴 때에도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언약을 저버리는 것은 아합에게서 요약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엘리야에게서 나타납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엘리야에게서 나타납니다. 아합이 표현한 것을 배경으로 여기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소개도 없고, 그의 배경,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 엘리야가 그 자체로 설교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실제로 그의 삶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Van't Veer의 책 제목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그것이 엘리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의 이름이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근본적인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그것이 그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의 두 가지 구성 요소를 분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명사 접미사 “하나님”인 엘이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호소했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가 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것을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은 실제로 단순히 언약의 저주를 제정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언약 저주에 대한 링크 언약 이 세워졌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이 순종한다면 특정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하면 특정한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언약과 그 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로 돌아가면 “너희가 미혹을 받아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절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진노하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리라.”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명기 28:15-18: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치리니. 너는 도시와 시골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광주리와 떡 반죽 통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태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의 송아지와 네 양의 어린 양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희는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22절 아래에는 저주의 긴 목록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첫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23절: “네 머리 위의 하늘이 낯이 될 것이며 철 아래

땅. 여호와께서 너희 땅의 비를 티끌과 가루로 바꾸실 것이다.” 따라서 가뭄이 언약의 저주 중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엘리야가 여기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지 않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년 6개월.” 즉, 엘리야의 강점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약속한 일을 해달라고 간구했고, 그것은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위대한 힘을 상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의 신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많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엘리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그는 가뭄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심에 기도하며 호소했습니다.

그 응답 에서 여호와께서는 바알의 약함을 능가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바알은 자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비의 현상은 바알의 영역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알은 무력하여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물론 지금 우리는 엘리야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여전히 대립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힘은 엘리야의 힘이 있었던 곳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언약적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도가 일과 행동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틴어로 종교개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종교개혁 모델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뜻의 "ora et labora"입니다. 당신은 엘리야가 한 일에 주목합니다. 그는 기도에 발을 딛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James에게서만 그것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나 그는 가서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7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언약을 버릴 때에도 그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강화하며 모든 혼합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져오기 위해 엘리야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것은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힘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한 호소였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고 이 대조를 유지하는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접근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섹션으로 갈 때 이것으로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돌이켜 요단 동편 그릿 골짜기에 숨으라.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는 요단 강 동쪽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매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2. 엘리야의 은폐는 계시적 의미가 있음 - 그릿 시냇가 그래서 2-6절의 주제는 “엘리야의 은폐는 계시적 의미가 있다” 입니다. 이제 우리는 1절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개발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엘리야의 모습은 계시였습니다. 그의 백성이 언약을 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신실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적어도 대중의 시선에서 엘리야의 실종과 그의 은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지는 엘리야의 은폐도 계시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첫째, 그의 은폐 명령이 내려집니다. 1절에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그는 언약의 저주가 현실화되도록 스스로 기도한 다음 저주가 온다는 소식을 아합과 대면했습니다. 2절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첫 번째 행동과 관련된 어떤 명령도 읽지 않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엘리야가 의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명령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불러들여 공적인 사역을 계속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광야로의 후퇴와 그의 은폐는 탈영자의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순종하는 종의 행동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기를 떠나 요단 동편 그릿 골짜기에 숨으라 하시니

많은 질문이 그의 마음에 떠 올랐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신실한 자들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예언적 임무는 끝났는가? 그가 왕에게 한발의 선언이라는 짧은 말 한 마디만 허락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질문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그가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릿 시냇가로 갔다. 그래서 은폐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은폐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가 왜 보내졌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제거되었고 사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그의 안전을 위해 수행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읽지만 그것은 갈멜 산 사건 이후입니다. 아합이 말을 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뭄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그의 말뿐이었다. 왜 그를 죽입니까? 그가 왜 숨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다면 안전이 주된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요점이라면 왜 그는 오바댜에게 지켜질 수 없었을까요? 오바댜는 아합의 박해 기간 동안 다른 선지자 그룹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협력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의 은폐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내가 거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은폐는 계시라는 것이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대한 계시입니까? 계시가 그쳤다는 계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신자의 전형이나 예로서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엘리야에게는

특별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릇으로 갈 때 광야로 가는 것은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중에서 대변인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의 은폐는 그런 의미에서 계시였습니다. 그의 은폐는 계시가 그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계시라고 부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두 번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그쳤다는 계시입니다. 그의 은폐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예언자의 제거가 심판을 확증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가뭄이 있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말씀의 집행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그릇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계속 교통하시고 엘리야를 돌보시므로 그 자신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고립되지 않습니다.

3. 엘리야가 은폐된 동안 하나님이 돌보신 의의 그림 3. 엘리야가 은폐된 동안

하나님이 돌보신 의의.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 구절이 그의 모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예로 사용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결코 그의 자녀들이 굶주림이나 목마름으로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의 까마귀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릇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백성에 대한 기적적인 돌봄의 상징이 됩니다. 까마귀는 곤경에 처했을 때 예상치 못한 도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봅시다. 이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항상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까? 나는 그런 종류의 독서가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르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7,000명이 가뭄과 기근의 때에 있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찌 말하리요.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대신에 그들을 본보기로 삼지 않겠습니까?

사건을 구속사의 맥락에 놓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관점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자입니다. 그의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붙드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백성들과 독립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에 의존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원리는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신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방법이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반대도 참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업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 노령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기근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고, 반란 또는 어떤 수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은밀히 보존되었다는 것은 그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엘리야의 숨김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엘리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넷째, 엘리야의 숨김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엘리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공의를 선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약의 저주를 위해 기도하고 그 제정을 선언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저주를 철회할 수 없었다. 그는 순종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용서나 정당화를 제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무력합니다. 그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민족의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 백성의 형벌을 스스로 짊어지라고 요청한 모세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는 엘리야보다 더 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격리된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은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좋아, 10분만 쉬자.

Briana Thomas 와 Rebecca Brule
의 필사본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Dr. Perry Phillips의 최종 편집
Dr. Perry Phillips의 내레이션